



Gift 컬렉션

홍성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06년 11월 20일부터 (한정 수량이므로 서둘러 주십시오.)
- **장소:** 전국 주요 기독교서점 및 대형서점

찰스 콜슨 컬렉션

- 구성도서 리빙갓/백악관에서 감옥까지/이것이 교회다
- 세트정가 46,300원 → **세트할인가 37,000원**

이재철 청년 컬렉션

- 구성도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참으로 신실하게 내게 있는 것/인간의 일생
- 세트정가 32,800원 → **세트할인가 26,200원**

루이스 베스트 컬렉션

- 구성도서 보급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보급판 고통의 문제/보급판 순전한 기독교
- 세트정가 17,500원 → **세트할인가 14,000원**

대천덕 기초신앙 컬렉션

- 구성도서 대천덕 자서전/토지와 경제정의/나와 하나님/우리와 하나님
- 세트정가 50,400원 → **세트할인가 40,300원**

오경준 성서연구 컬렉션

- 구성도서 성경에는 없다/성경에는 있다
- 세트정가 18,000원 → **세트할인가 14,400원**

루이스 사상 컬렉션

- 구성도서 시편 사색/네 가지 사랑/인간 폐지
- 세트정가 28,100원 → **세트할인가 22,400원**

이재철 기초신앙 컬렉션

- 구성도서 Audio새신자반/Audio성숙자반
- 세트정가 98,000원 → **세트할인가 78,400원**

김서택 설교론 컬렉션

- 구성도서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강해설교의 기초/강해설교와 목회
- 세트정가 37,000원 → **세트할인가 29,600원**

루이스 연구 컬렉션

- 구성도서 루이스 대 프로이트/루이스와 톨킨/나니아 나라를 찾아서
- 세트정가 39,800원 → **세트할인가 31,800원**

어린이 수채화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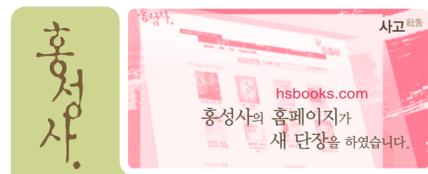
- 구성도서 켈트할머니의 선물/꼬꼬닭 모자가 어때서?
- 세트정가 23,000원 → **세트할인가 18,400원**

어린이 맥스 루케이도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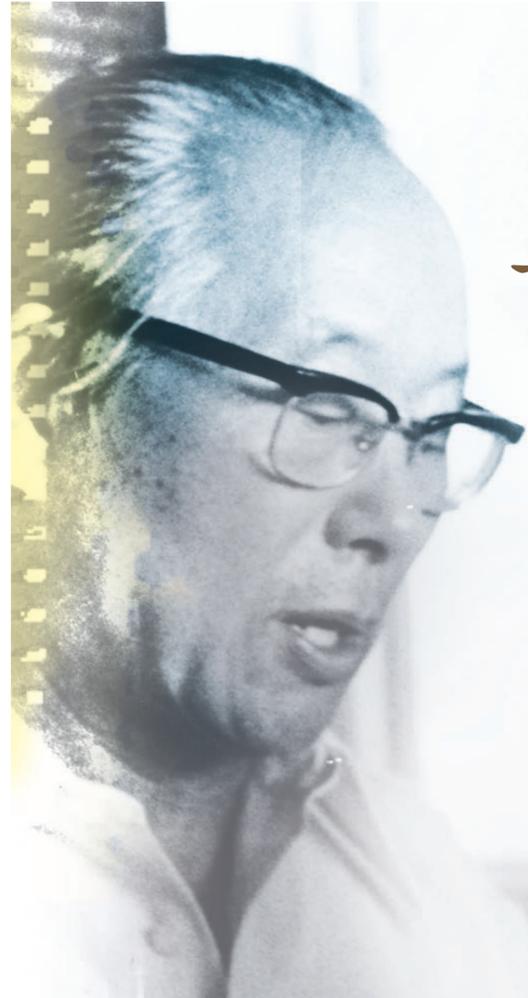
- 구성도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토비아스의 우물/아주 특별한 모자
- 세트정가 19,500원 → **세트할인가 15,600원**

우리 아이 찾기도책

- 구성도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세요/어디서나 우리를 지켜 주세요/이 세상을 지켜 주세요
- 세트정가 19,500원 → **세트할인가 15,600원**



弘盛社 Hong Sung Sa, Ltd.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지(無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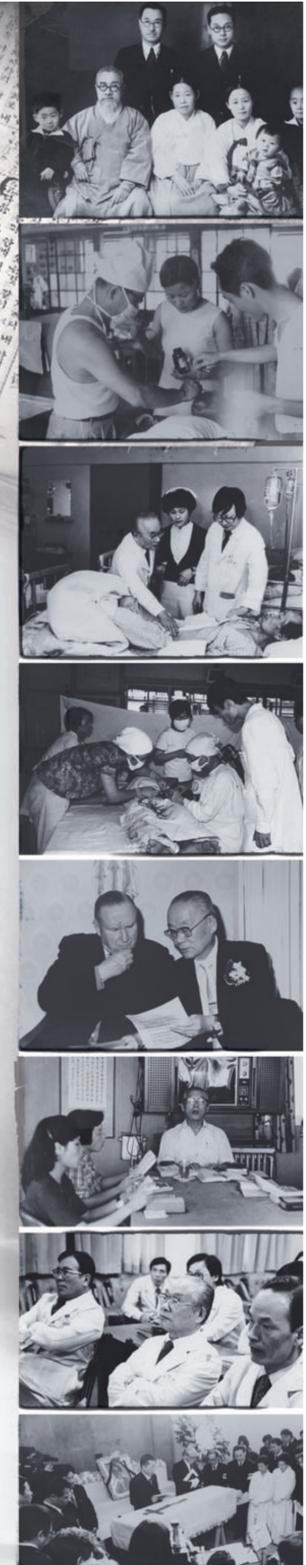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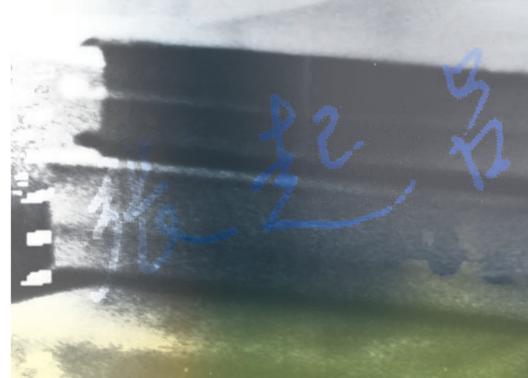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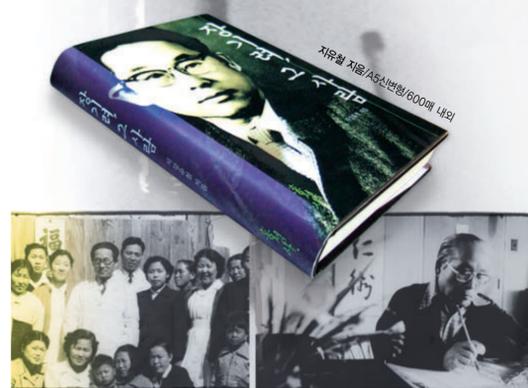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 있는 성자’, ‘바보 의사’, ‘작은 예수’ 등으로 불리며 우리 길을 살다 간 성산 장기려 선생(1911-95)은 이면과 표면의 경계를 허문 사람이었다. 감출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다. 진실과 정직을 포기하느니 감옥행을 결심할 정도였다. 1950년대 초반, 장기려 선생은 수술 중에 출혈점을 잡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사망시킨 일이 있었다. 장기려 선생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의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경찰은 “면허증 있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소. 할 수 없지 뭐” 하며 풀어 주었다. 선생의 이런 고백은 그의 생애에서 반복되었다.

장기려 선생의 또 다른 인간됨은 어떤 사람을 거지, 대통령, 행려병자 등 그가 가진 권력, 돈,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생은 이복에서나 이남에서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았을 때를 막론하고 자기 집에 구걸 온 거지와 겸상을 했다. 오죽했으리 복환의 아내가 40년 만에 남편의 사진을 받아보고 자식들에게, “두 개 가져면 벌받는 줄 아시는지 벌받이 거지에게 옷 벗어 주고 퍼렇게 얼어서 들어오셨어. 내가 부엌에서 끓는 것도 모르시곤 길 가는 거지들을 불러와서 겸상 차려 먹이신 양반”이라고 했겠는가. 차남 장가용의 집에 머물 때는 가정 일을 돕는 아주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별한다고 불호령이 떨어졌다.

선생이 6.25전쟁 이후 우직스럽게 무료 병원을 계속한 것이나 부산대학교 뒤편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행려병자들을 식구처럼 돌보았던 것은 그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보험을 시작하기 10년 전에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던 것, 그리고 몇 년 뒤 사부 장관이 영세 사업자를 위한 의료보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23만 명의 회원들 등 의료보험조합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차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생에게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든 거지는 행려병자든 모두가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중략)

장기려 선생은 약 500여 편의 글과 90여 편의 번역 원고를 남겼다. 거의 모두가 기독교적인 내용이다. 때문에 선생의 사회봉사에 깊이 매료되어 그를 더 깊이 알려 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너무도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그의 글이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생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무신론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술어를 찾기 위해 고심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로서 어떻게 하면 유물론(무신론)자들에게 같이 이해될 수 있는 술어(단어)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할 하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진리)을 표현하는 술어는 무엇일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는?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귀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이 평생 이론 업적과 의사로서의 신천에 누구인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비기독교인들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는 스님, 신부님을 선생이 주최하는 부산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환영했다. 선생의 실천적인 사회봉사는 물론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이 비기독교인들을 섬기려는 것이었다. 자신의 묘비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하였지만, 선생으로 하여금 평생 남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게 만든 요인을 누가 어떤 각도에서 조명한다 해도 기독교 신앙이었다. 선생의 신앙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에게, 또는 진보의 색채를 지닌 신앙인들에게 다소 불편할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선생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다 주었던 의사였다. 그리고 선생은 그것을 줄 때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것 받고 예수 믿어야 한다거나, 예수를 믿으니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준다는 식의 생각이 선생에게는 없었다. 선생의 말이 혹시 어떤 사람들을 거슬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실천은 그런 사람까지도 끌어안았다. 행복은 때때로 이처럼 멋진 역할을 타고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온고지신 溫故知新

가족이 함께 보는 성경 지식창고

《성경전과》 신·구약 전 2권

셀리나 헤이스팅스 글·에릭 토마스 그림/최원준 옮김/양정/질러

신약 152면/19,000원
구약 184면/24,000원

